

‘광양 루니’ 이종호 “올 10골 목표...전남 승리 이끌 것”



K리그2 시즌 개막 미디어데이 양리 박희성과 투톱 조합 기대 전경준 감독 “착실히 준비했다”

‘광양 루니’ 이종호(사진)가 부상 없이 전남드래곤즈의 승리를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K리그2 10개 구단 감독과 대표 선수들이 23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2021시즌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었다.
승격을 위해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전남드래곤즈에서는 전경준 감독과 함께 주장 이종호가 참가했다.
지난해 고향으로 돌아와 올 시즌 주장으로 전남을 이끌게 된 이종호는 “감독님을 믿고 열심히 매 경기 소중하게 하다 보면 행복한 연말이 될 것 같

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며 올 시즌을 앞둔 각오를 밝혔다.
자유 계약으로 전남 유니폼을 입은 박희성과의 공격을 이끌겠다는 각오도 언급했다. 박희성은 고려대 재학시절 ‘양리’로 통했던 선수. 전경준 감독은 ‘루니’와 ‘양리’의 투톱 조합도 예고했다.
이종호는 “양리형 잘 도와서 도움 받고, 팀 승리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웃음을 선사했다.
개인적인 목표는 10골이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고전했던 만큼 무엇보다 부상 없는 시즌이 이종호의 가장 큰 목표다.
이종호는 “공격수니까 최대한 빨리 10골을 넣고 싶다. 10골을 넣은 뒤 그다음 목표를 정해서 부상 없이 매 경기 좋은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매년 똑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자신감을 찾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지트

레이닝 하다 보면 예전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종호를 올 시즌 ‘핵심’으로 언급한 전경준 감독은 ‘역할’에 충실한 팀을 만들어 좋은 결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경준 감독은 “포지션마다 역할이 있고 선수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어 마지막에 결과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며 “올해는 동계부터 착실히 준비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경기력과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개막 상대인)아산뿐만 아니라 매 경기 할 수 있는 것, 집중할 부분에 힘을 쏟고, 기존 스쿼드를 바탕으로 우리팀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2021시즌을 앞둔 소감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배구 코로나 직격탄...남자부 경기 2주간 중단

KB손해보험 박진우 확진

한국 겨울 스포츠의 꽃인 프로배구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배구연맹(KOVO)과 남녀부 각 구단, 선수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썼지만, 리그 중에 주축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프로스포츠 종목 중 1군 무대에서 뛰는 국내 선수에게서 시즌 중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KB손해보험은 22일 오후 늦게 “센터 박진우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진우는 당일 오전 고열 증세를 느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오후 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KOVO는 23일 “2주간 남자부 경기 일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가 없다면 3월 9일 남자부 경기를 재개한다.
여자부 경기는 23일 연맹 전문위원, 심판진, 기록원 등 관계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보고, 추



고열 증세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KB손해보험 박진우. /연합뉴스

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프로배구와 프로농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기에 시즌을 종료했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개막을 늦췄다.

이해 모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비’였다.
프로야구에서는 시즌 중에 2군 선수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퓨처스(2군)리그 일부 경기가 취소됐다.
축구 대표팀 오스트리아 원정 중에 K리그 소속 선수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미 K리그가 끝난 뒤여서 리그 진행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울산 현대는 당시 대표팀에 차출된 소속 선수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해당 선수를 2020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서 활용하지 못했지만, 우승을 차지했다.
2부리그인 K리그2에서는 시즌 마지막 선수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선수 소속 팀의 정규리그 잔여 경기는 물론 준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을 펼치던 다른 팀의 경기도 2주가량 연기된 바 있다.
정규리그가 예정보다 늦게 끝나면서 승격 기회를 다투는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시즌 대상 시상식 일정도 밀렸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양궁장 그대로...양궁대표 실전 방불 훈련

박채순 총감독 선수촌에 세트 조성

박채순 광주시청 여자양궁팀 감독이 총감독을 맡고 있는 양궁 국가대표팀이 23일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시작했다.
선수촌 내에 도쿄올림픽 양궁 경기장 열릴 유메노시마 공인 양궁장의 ‘세트’를 만든 것.
선수들은 이날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도쿄 올림픽에 대비한 이를 일종의 시뮬레이션 훈련을 시작했다.
남편 개인전, 혼성전, 단체전을 실제 올림픽 일정에 맞춰 진행하는 것은 기본이다.
대표팀은 유메노시마 공인 양궁장의 ‘세트’를 만든데 이어 도쿄 올림픽과 유사한 모양의 현수막을 설치했고, 사대와 표적 바닥 높이를 유메노시마 공인 양궁장과 똑같은 규격으로 제작했다.
또 선수가 경기장에 출입할 때부터 경기를 치르고 미디어 인터뷰 존으로 갈 때까지의 동선을 실전과 똑같이 만들었다.
한국 대표팀이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으로부터도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만큼, “미디어 환경”을 실제처럼 조성하는 데에 특히 힘썼다.



양궁 대표팀 선수들이 23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도쿄 올림픽에 대비한 이를 일종의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다. <대한양궁협회 제공>

경기장에 레일캠, 초고속 카메라, 카메라 박스, 심박수 측정 카메라 등을 설치해 선수들이 올림픽 중계 환경을 미리 경험하게 했다.
박채순 총감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 전지훈련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훈련은 올림픽 경기 운영 능력을 키우고 미디어 환경에 미리 적응해보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FC 중원 지키러 돌아왔다 ‘성난 황소’ 이찬동 5년만에 복귀

‘성난 황소’ 이찬동(28·사진)이 광주FC의 중원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다.
광주가 23일 미드필더 이찬동을 제주유나이티드로부터 완전 이적 형태로 영입했다. 이로써 이찬동은 5년 만에 자신의 축구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
183cm·80kg의 다부진 체격을 지닌 이찬동은 인천대에 재학 중이던 2014년 광주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했다.
왕성한 활동량과 강력한 압박을 통한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성난 황소’, ‘싸움닭’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이찬동은 프로 첫해부터 31경기에 나와 1득점을 기록하는 등 중원 한 자리를 차지하며 광주의 1부리그 승격을 이끌었다.
2015년 팀의 잔류와 함께 팀의 역대 최고 순위(8위)에 기여한 그는 2016년에는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돼 2016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가하기도 했다.
3년 동안 광주 중원을 책임진 그는 2017년 제주로 이적했다.
이한샘에 이어 광주의 ‘싸움닭’ 계보를 이은 이찬동까지 복귀하면서 광주의 전투력이 상승했다.
또 2014년 인천대를 졸업하고 이찬동과 나란히 광주 유니폼을 입었던 송승민 등 광주 역사에 이름



을 남겼던 선수들의 복귀 러시포 팬들은 반색하고 있다.
광주에 돌아온 이찬동은 “나를 키워주고 성장시켜준 광주에 다시 돌아오게 돼 감격스럽다”며 “간절함을 안고 광주에 왔다. 초심으로 돌아가 광주의 발전과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는 김종우, 김원식, 여봉훈, 한희훈, 이한샘, 박정수로 중원을 구축한 광주는 이찬동을 더해 허리를 강화하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학교체육위원장 김현중·육상 모일환·소프트테니스 지도자 손영호 등 광주시체육회 임원·선수 6명 대한체육상 수상

광주시체육회는 23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67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광주체육회 임원, 선수 등 6명이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김현중 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학교체육 부문 우수상·사진), 모일환(조선대·육상), 황진욱(광주시청 보디빌딩·이상 경기부문 장려상), 손영호 지도자(동신고 소프트테니스·지도 부문 장려상), 김기현 광주시체육회 이사, 박병준 전 광주시북상협회장(이상 공로 부문 장려상) 등이다.
육상 선수출신인 김 위원장은 선수 육성은 물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여했다. 지난해부터는 시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모일환은 지난해 제49회 전국종별육상대회 200m, 400m에서 우승했다. 제48회 KBS배 전국



육상경기대회 400m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황진욱은 지난해 SBS스포츠 Mr&Ms 코리아대회에서 85kg급 우승을 차지한 후 대회 미스터코리아에서도 대상을 획득했다.
손영호 지도자는 동신고를 소프트테니스 명문으로 이끌었다. 동신고 소프트테니스팀은 지난해 열린 전국중·고등학교 추계연맹전에서 단체전, 복식, 개인전을 모두 석권했고, 제98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우승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카오스 워킹
2관	카오스 워킹
3관	통과 제리, 워 워드 그랜파
4관	통과 제리, 간 지역
5관	미션 파서블, 빛과 철
6관	미션 파서블
9관	소울
7관	씨네카를
8관	씨네카를

극장편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퍼펙트 캐어, 새해전야, 라스트 레터, 통과 제리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시즌1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일시 : 2021. 03. 14.(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